

# 더민주 도당 지역위원장 투표율 높아

26일 오후 4시 기준

부안 49.5%로 김제 39.4% 크게 앞서... 김춘진 후보 선전 전주를 23.3%... '이상직 살리기' '최형재 희망론' 영향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위원장 경선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높은 경선 투표율은 무엇보다 대선에서의 역할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위기감을 자극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부안 지역은 오후 4시 기준 49.5%(1,281명)를 기록해 김제 39.4%(934명)보다 크게 앞섰다. 부안 지역 당원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투표율만 놓고 보면 김춘진 후보가 선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지역위원장을 배출하지 못하면 향후 국회의원 배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총선에서 김춘진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김춘진 의원에겐 아쉽게 패배한 것이 투표를 관심도를 증폭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반대로 김제 지역 표 결집력은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배출되면서 다소 이완된게 아나나는 분석도 가능하다. 특히 조직선거의 달인이라고 평가받는 최규성 후보 지역인자라 다소 이완되는 반응이다. 김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등 '선거 패배 주범'으로 인식 됐던게 이번 투표율 저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를 경선 투표율도 오후 4시 현재 23.3%(1,282명)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이상직 후보 살리기'와 '최형재 후보 희망론'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각 후보들간 간절함도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도 높다. 최형재 후보의 경우 현 지역위원장이자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가 쉬울 것으로 보였지만 권리당원 투표 참여를 두려워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지역위원장 경선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도로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상직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본선에 오르지 못하고 아쉽게 패배, 실목전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이날 투표장은 이들 후보들의 간절함 때문인지 오전부터 투표 행렬이 길게 이어질 정도로 성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당비 6개월 이상 낸 권리당원들의 선택인 만큼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역위원장 경선이 식었던 더불어민주당에 불을 지필지 두고 불일이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도 장애인문화예술협회 발기인대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장애인미술협회, 청수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관련 단체 회원들은 26일 도의회 의실에서 전라북도 장애인문화예술협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지난 5월31일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더민주, 비례)이 발의한 '전북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연장선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했다. 최은희 의원은 "조례제정을 계기로 그간 소외됐던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협회가 도내 13만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가교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 더민주, 노동·민생 당원부족 최고위원 선출 차질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 등 5개 부문의 최고위원을 뽑아 중앙당 지도부에 보내기로 했지만 노동·민생부문의 경우 당원 부족 탓에 다음달 27일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전까지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못하게 됐다. 당초 더민주주는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부분 최고위원을 5명 뽑아 서울·제주·경기·인천·강원·충청(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광주·전북·전남), 영남(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권역별 최고위원 5명과 함께 지도부에 입성시킬 계획이었다. 이들 최고위원 10명은 당대표·원내대표와 함께 당 지도부에서 활동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노동부분 권리당원수가 2,000여명으로 최고위원 선출이 가능한 기준(부분별 3,000명)에 미치지 못해 선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민생부문의 경우 당원모집 시 구분절차가 미비해 최고위원 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전당대회 후 더민주 지도부는 정원 12명에서 2명이 모자란 10명으로 출범하게 됐다. 당 안팎에선 준비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정당을 표방했던 더민주에 노동부분 당원이 부족해 최고위원을 뽑지 못하게 됐다는 점은 더 큰 문제라는 비판도 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같은 지적에 "노동·민생부분 권리당원수가 3,000명에 미치지 못해서 해당부분 최고위원 선출에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게 됐다"며 "3개월간 해당부분 당원을 모집해서 최고위원을 뽑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1

##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검찰, 전형적 세탁용 감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 개시에 대해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세탁용 감찰, 우병우 민정수석을 세탁하기 위한 특별 감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무엇을 위한 특별감찰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형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의 일반 감찰하도록 돼있다"며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넥슨과 우 수석 처가와의 부동산 거래에 우 수석이 어떻게 개입이 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애초부터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뉴스1

##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취임식

국회 정운천(전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취임식이 26일 당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취임식에는 김희욱 새누리당 혁신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이주영 주호영 홍문종 당대표 후보, 최연희 이창호 함진규 최고위원 후보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거 방문했다. 이와 함께 송하진 도지사, 황 현 전북도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전북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운천 신임 도당위원장은 "전북은 30년 동안 일당독주가 이루어지면서 중앙과 소통이 막혀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면서 "14개 시군과 함께 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 집권여당과 소통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소산업 육성, 새만금 개발, 금융산업육성 등을 통해 전라북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면서 "이를 통해 '강한 전북'이라는 '전북'을 만들어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광영 기자



26일 전주시 완산구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서 김희욱(가운데)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이 끝나고 있다.

## 국민의당 공수처법 윤곽... 법안 통과는 '글쎄'

으로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긴급 공개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신설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섰다.

국민의당 공수처 준비 TF는 전날 1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 신설 관련 자체 법안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더민주가 제시한 공수처 신설법안에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견도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더민주 법안 그대로 논의를 하기로 했다"며 "다만 수사처장의 자격을 일반인까지 넓힌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조인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1

청결·세상

# 같은 마음의 에너지 절약이 모두의 미래가 됩니다

국민과 기업이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 온실가스를 줄이는 모두의 에너지절약이 지구를 살립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여름철 실내온도 26℃로 절약은 더하기

실내조명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낭비는 줄이기

도시지역을 신재생 에너지로 희망은 두배로

친환경 전기차 보급으로 기쁨은 나누기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